

경북방언의 축약현상

이 동 화

〈目 次〉

- | | |
|---------------|-------------|
| 1. 서론 | 2. 본론 |
| 1.1. 연구의 목적 | 2.1. 통시적 현상 |
| 1.2. 용어의 정의 | 2.2. 공시적 현상 |
| 1.3. 선행연구의 검토 | 3. 결론 |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경북방언(또는 경상도방언)¹⁾이 중부방언을 비롯한 다른 방언에 비하여 보수성이 비교적 강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를테면 읍운현상에서 삭제와 동화가 매우 활발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병행하여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에서 축약현상이 매우 생산적으로 실현된다는 것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²⁾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국어의 축약현상에 대해 부분적으로, 또는 다소 그릇된 방향으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나아가 경북방언에서 나타나는 축약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하여 이 현상을 지배하는 기제를 밝혀 보고자 한다.

1.2. 용어의 정의

우선, 영어에서의 축약(contraction)은 (1 7, 1)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통사적 현상에 속한다.

-
- 1) 경북방언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실제로 이용된 언어자료는 주로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지역의 언어임을 밝혀 둔다.
 - 2) 대표적인 업적으로 정철(1980)을 들 수 있다.

- (1) ㄱ. he is→he's
 he will→he'll
 he would→he'd
 ㄴ. is not→isn't
 have not→haven't
 will not→won't

그런데, 국어에 있어서 축약현상을 다룬 논문들을 보면 논자에 따라 용어의 개념이나 그 사용 범위부터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다음 (2)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음운 층위에서부터 통사적 층위까지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 (2) ㄱ. 음운 층위 : 최명옥(1982:110) .
 ㄴ. 음절 층위 : 최태영(1983:98), 이기문 외(1984:185), 김동언(1986:130)
 ㄷ. 음소 및 음절 층위 : 허웅(1978:260)
 ㄹ. 음운 및 통사적 층위 : 정철(1980:31)

이와 같은 상반된 견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축약은 형태소 내부(통사적 현상) 또는 형태소 경계(공시적 현상)에서 결합된 두 모음이 다른 하나의 모음이 되거나, 두 음절이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로 줄어드는³⁾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1. 3. 선행연구의 검토

지금까지 축약현상을 다룬 논문들에 대해 간단히 개괄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음운론의 최소단위인 음운 층위에서 축약현상을 다룬 논문으로는 최명옥(1982)을 들 수 있는데, 경북 월성지역어의 음운현상에서 나타나는 ‘기+아도→기이도(포복)’⁴⁾, 모이+아도→모애도(集), 때리도(打)’ 등의 예에서 활음화된 ㅈ가 ㅌ로 실현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어간이 1음절인 어사의 경우에도 모음축약이 일어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

3) 여기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물론 모음 삭제의 경우와는 구별된다.

가+아→가(去), 사+아→사(賈)

이와 같은 경우는 동음 삭제로 취급해야 한다.

4) ‘기+아도→기이도’로 실현되는 음운과정에서, 모음순행동화가 아닌 활음화 다 음의 모음축약 과정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음절 층위에서 이런 현상을 고찰한 논문으로는 최태영(1983), 이기문 외(1984), 김동언(1986) 등이 있는데, 최태영(1983)에서는 ‘이+어라→여라, 보+아→봐’처럼 용언의 활용에서 /i/는 /ə/ 앞에서 /j/로, /o, u/는 /ə/ 앞에서 /w/로 전이음화되는 현상을 다루고 있으며, 이기문 외(1984)는 ‘그리+어→그러, 보+아라→봐라, 가히>개(犬)’에서처럼 통시적, 공시적으로 두 개의 음절이 하나로 축약되는 사실을 검토하고 있으며, 김동언(1986)은 ‘밤사이>밤새, 주인장>권장, 누이다>늬다’에서 보듯이 준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전설과 후설의 두 모음이 중간의 제3 모음으로 축약되는 현상을 고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논문들은 그 성격의 제약성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허웅(1978)에서는 ‘이+어→여, 오+아→와, 뜨+이→띠, 뵈+어→뵐’ 등 형태소 경계에서의 두 모음이 중모음 또는 간음화되는 현상과 함께 ‘/k, t, p/ + /h/ → /kʰ, tʰ, pʰ/’처럼 두 개의 자음이 결합하여 한 자음으로 되는 것을 축약이라고 보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 이른바 격음화의 음운과정을 축약으로 보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자음에 있어서 축약의 개념을 인정한다면 격음화와 음운과정이 비슷한 정음화도 축약의 범주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축약현상에 대해 비교적 종합적인 검토를 한 논문으로는 정철(1980)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내어 버린다.→내 버린다, 못 한다→모 한다, 아무치도→암치도, 많이→마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음절이나 음소가 탈락하여 음소배열의 길이가 축약되는 모든 현상을 다 포괄함으로써 그 개념을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적어도 자음탈락의 경우, 그것은 축약이라기보다 탈락현상으로 해석함이 더욱 합리적인 것이다. 자음탈락은 별도의 음운 규칙으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간편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축약의 개념을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음운 층위에서든 음절 층위에서든 축약은 음운에 관계되는 현상에 한하여 사용하고 자음은 음운의 탈락규칙으로 설명함이 타당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2. 본 론

2.1. 통시적 현상

2.1.1. 형태소 내부

2.1.1.1. 고유어

명사류나 부사류⁵⁾ 가운데 두 음절이 줄어서 하나의 음절로 되는 부류가 있다. 다음 (3)의 예를 보기로 하자.

- (3) ㄱ. 오늘>울, 사흘>살, 나흘>날
 ㄴ. 가을>갈, 마음>맘, 다음>담
 ㄷ. 겨울>결>절, 싸움>쌈, 도움>돔, 무서움>무섭
 ㄹ. 사이>새, 아이>아
 ㅁ. 무엇>뭐>머, 부엌>뽕>벽
 ㅂ. 이렇게>이러키>이키, 저렇게>저러키>저키,
 그렇게>그러키>그키, 억세게>억씨키>억씨

위의 예에서 (3ㄱ)의 경우, 비음 / ㄴ / 과 후음 / ㅎ / 이 모음간에서 삭제되면 (3ㄴ)과 음운환경이 동일하게 되어, 제2 음절의 '으'가 삭제된 다음, 하나의 음절로 축약된다. 그런데, 용언의 경우, 어간말음 다음의 어미 두모음 '으'가 삭제되어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데 비해 체언의 경우에는 위의 예에서 보듯이 보상적 장음⁶⁾이 발생하는 것이 대조적이다.

다음, (3ㄷ)의 경우는 모음간에서 '우'가 삭제되어 음절이 축약되는 예인데 역시 보상적인 장음이 발생한다. 그러나, 비슷한 음운환경을 가졌으면서도 '지움' > *짐, 배움 > *뱀'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런 현상은 지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3ㄹ) 역시 음절이 줄어들면서 장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이' > 새'는 흔히 간음화라 불리는 예이고, '아이' > 아'는 같은 음운환경을 가졌으면서도 간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2 음절의 '이'가 삭제되어 중부방언의 '아이' > 애'와 달리 실현된다.

5) 여기서 다루는 부사류는 조어론적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 '그렇게' 처럼 상태동사 어간에 부사화 파생접미사가 결합된 형태이나 이들이 이미 통시적으로 굳어진 하나의 형태소로 취급한다.

6) 보상적 장음화에 대해서는 이병근(1979)에 자세히 논의되어 있다.

한편, (3口)은 제1음절의 ‘우’와 제2음절의 ‘어’가 결합하여 활음을 형성한 다음, 활음이 삭제되면서 장음화가 실현되는데, 같은 음운환경인 ‘부엉이’>‘병이’는 실현되지 않는다.

부사류에 속하는 (3ㅂ)의 경우는 제2·3음절 사이에 격음화가 된 다음 제2음절이 삭제되어 버리는 과정을 보여주며, ‘억새계’>‘억새’의 경우는 제1·2음절 사이에 경음화가 된 다음 제3음절의 연구개음 / ㄱ / 이 모음간에서 삭제되고⁷⁾ 난 후 제2음절의 ‘이’가 삭제된 것으로 해석된다. 제2·3음절에 있는 동음 ‘이’ 중에서 제2음절의 그것이 삭제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것을 앞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1.2. 한자어

한자어에 있어서 음절축약은 생산적이지는 못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어사에서 가끔 실현된다.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하자.

(4) ㄱ. 내일>넌, 제일>쩔

ㄴ. 주인>친>진

ㄷ. 천연(스레)>천시리, 공연(히)>괜히>개니>개이

위의 예에서 (4ㄱ)은 제1음절의 ‘애/에’ 뒤에서 제2음절의 ‘이’가 삭제되어 한 음절이 되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차일’>‘찰’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모음의 음운론적 강도⁸⁾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4ㄴ)의 예는 활음이 형성된 뒤 다시 삭제되는 과정에서 음절이 줄어드는 경우인데, ‘부인’>‘빈’>‘빈’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소 특이한 현상이다.

(4ㄷ)은 한자어 뒤에 접미사가 붙어서 고유어처럼 굳어버린 경우인데, ‘공연히’는 음절이 축약되면서 단모음화, / ㅎ / 삭제, / ㄴ / 삭제의 과정을 밟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자어에서 축약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음절마다 지니고 있는 의미의 손상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인 것으로 생각되며, 순우리말처럼 친근감을 주는 몇 개의 어사에 한해서 축약이 실현됨을 알 수 있다.

7) 연구개음 삭제에 대한 음운론적 기제에 대해서는 이동화(1984:46)를 참조할 것.

8) 음운론적 강도에 대해서는 이병근(1979)을 비롯하여 몇 편의 논문이 있으나 최근의 논의로는 이동화(1987)가 있다.

2.1.2. 단어 경계

2.1.2.1. 관용구 및 파생어

먼저,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하자.

(5) ㄱ. 저+아(=아이)>자, 이+아>야, 그+아>가

ㄴ. 어린+아>언아>언나

ㄷ. 그+동안>그땀>그단

ㄹ. 할배+님>할배, 할매+님>할매, 아배+님>아배, 어매+님>어매, 아지배+님>아지배, 아지매+님>아지매, 도령+님>되련님>대련님>대리

위에서 (5ㄱ)은 어두음절에 첫 자음이 있을 경우, 그 음절의 모음이 삭제되고, 첫 자음이 없을 경우 활음형성을 하면서 음절이 줄어드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5ㄴ)의 경우 어중음절의 일부가 삭제되어 ‘언아’로 축약되어 다시 /ㄴ/이 덧나게 되어 ‘언나’로 실현된다. 이것은 형태소 간의 경계의식이 분명한데서 오는 /ㄴ/의 폐음화⁹⁾로 인하여 어말음절에 /ㄴ/음이 덧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5ㄷ)은 먼저 모음간에서 비음 /ㅇ/이 삭제된 다음, 두 모음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활음형성을 하였다가 다시 활음삭제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한편, (5ㄹ)은 가족호칭에 존칭표시의 접미사 ‘님’이 결합할 때 모음간에서 비음 /ㄴ/이 먼저 삭제되고, 어말음절의 ‘이’가 삭제되면서 음절축약이 일어난다. 그런데, ‘도령님’의 경우는 ‘ㅣ’모음역행동화가 일어나면서 /ㅇ/이 /ㄴ/에 역행동화¹⁰⁾된 후 어중음절말음과 어말음절두음이 삭제되는 과정에서 음절이 축약된 것으로 해석된다.

2.1.2.2. 통사적 문맥

자연발화 속에서 통사적 환경에 따라 수의적으로 축약이 실현됨을 볼 수 있는데, 비공식적이고 빠른 발화일수록 그 발생의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¹¹⁾

9) 폐음화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오종갑(1986)을 참조할 것.

10) 국어의 자음 동화에서 비음 /ㅇ/이 비음 /ㄴ/에 역행동화된다는 설명은 매우 기이한 사실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저형을 ‘도련님’으로 잡는 것이 좋을 듯하다. ‘도령’이란 한자어 대신 ‘도련’이란 우리말화된 어사에 대해 화자들이 더욱 친근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11) 통사적인 교체를 통시적 현상으로 보는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대부분 단어 경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편의상 여기서 다루기로 한다.

- (6) ㄱ. 오늘 아침에→온 아침에
 ㄴ. 내어 버린다→내 빠린다.
 ㄷ. 하루것도 없지→암꺼도 없지
 너무 많지→넌 많지
 ㄹ. 가주고 온나→가 주 온나→가 존나
 들어 온나→들 온나
 이리 온나→일 온나
 ㅁ. 인제 큰일났다→인제 킬(∼쿨)났다.

위의 예에서 (6ㄱ)은 한정적 용법에서 제2음절의 말이 삭제되면서 음절이 축약되는데, 명사적 용법에서 ‘오늘>을’로 실현되는 예와는 대조적이다.

(6ㄴ)의 경우는 이른바 조동사 구문에서 연결어미 ‘어’가 삭제되는 예인데, ‘죽어버린다→*죽빠린다’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면 개음절 어간 뒤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6ㄷ)은 앞 성분의 말음절이 개음절일 경우 어말모음이 삭제되는 예인데, ‘아주 많지→*앗 많지’로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면 역시 특정한 어사에서만 일어난다.

(6ㄹ)은 ‘오다’동사의 명령법에서 앞 성분의 어말음절모음이 삭제되면서 축약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기서 ‘가주고 온나’의 경우, 소년층에서는 ‘가온나’로 실현되어 어말음절 전부가 삭제되기도 한다.

한편, (6ㅁ)의 경우는 어휘적 의미와 관련되는 예인데, ‘낭패’의 뜻을 가진 ‘큰일’은 /ㄴ/이 모음간에서 삭제된 후 ‘킬’ 또는 ‘쿨’로 실현되지만 ‘경사’의 의미를 지닌 경우에는 ‘큰일치다→크일치다→*킬치다’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전자의 경우,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다급함을 표시하기 위해 축약을 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2.2.1. 형태소 경계

2.2.1.1. 곡용

체언과 조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용을 통하여 축약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 (7) ㄱ. 나+ㄴ→난, 가(=그아기)+ㄴ→간
 ㄴ. 너+를→넌, 자(=저아이)+를→잘

ㄷ. 저것+이→저게→저기, 이것+이→이게→이기

ㄹ. 저기+에→저게→저, 저기+에→저게→저

ㄹ. 이리+로→일로, 그리+로→갈로

위의 예에서 (7ㄱ)은 개음절어간이 보조조사 ‘는’과 결합할 때, (7ㄴ)은 목적격조사 ‘를’과 결합할 때 각각 격조사의 어두자음이 삭제되면서 축약이 일어남을 보여준다. 여기서 격조사의 말자음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형태소의 결합 또는 음절구조에 있어서 뒷형태소(또는 말음절)의 말자음은 일반적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7ㄷ)은 어간말모음 ‘어’와 주격조사 ‘이’가 결합하여 ‘에’로 축약된 뒤 다시 ‘이’로 수의적인 교체를 보인다.¹²⁾ 이때 주격 조사 ‘이’는 그대로 남아 있고 어간말모음 ‘어’가 삭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7ㄹ)은 어간말모음과 처격조사가 결합되면서 축약이 일어나고, 모음간에서 연구개음 / ㄱ / 이 삭제되어 그에 대한 보상적인 작용으로 처격조사 ‘에’가 어간말모음에 순행동화되어 음성적으로는 장음으로 실현된다.

다음으로 (7ㄱ)의 경우는 어간이 향진격조사 ‘로’와 결합하면서 어간말모음 ‘이’가 삭제되어 음절축약을 보이는 예이다.

2. 2. 1. 2. 활용

동사의 어간말모음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음절이 축약되는 현상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¹³⁾

(8) ㄱ. 이+어도→여도,

지+어도→저도→저도

치+어도→쳐도→쳐도

ㄴ. 기+어도→기도

이기+어도→이기도

다치+어도→다치도

ㄷ. 오+아도→와도

보+아도→봐도→바도

12) 최병욱(1982)에선 경북방언에서 e:i는 동시적 음운현상으로, e→i는 활용에서만 실현되는 공서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13) 활용에 나타나는 음운현상은 같은 경북방언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여기 제시된 언어자료가 경북방언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 ㄹ. 두+어도→뒤도→도도
 주+어도→쥬도→조도
 ㄴ. 배우+아도→배와도→배아도
 치우+아도→치와도→치아도

먼저 (8ㄱ)의 예에서 1음절 어간으로써 어두자음이 없는 어사는 활음을 형성하면서 음절이 축약되나, 어두자음으로 파찰음을 가진 어사인 ‘지-’, ‘치-’는 활음형성 후에 활음이 삭제되어 음절이 줄어드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8ㄴ)의 경우는 1음절어간이라도 어두자음이 파찰음이 아니거나 2음절 어간일 때 어간말모음 ‘ㅣ’는 활음형성을 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때 어미두모음 ‘어’는 삭제된다고보다 어간말모음에 순행동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의 경우 어미와 결합하여 장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한편, (8ㄷ)의 경우는 어간말모음이 ‘오’일 때 어미두모음과 결합하여 활음을 형성하는데, 어간두자음이 없는 어사는 축약이 된 후에도 활음이 그대로 유지되나 어두자음을 가진 어사는 활음삭제가 되면서 보상적 장음이 발생한다.

(8ㄹ)의 어간말음이 ‘우’인 1음절어간은 어미와 결합하여 활음이 형성된 후 다시 ‘워→오’의 음운과정을 밟는 것으로 생각된다.¹⁴⁾

(8ㅁ)은 2음절어간으로서 어간말음이 ‘우’인 어사가 어미와 결합하여 활음형성이 되면서 축약이 일어난 후 다시 활음삭제가 됨을 보여준다.

2.2.2. 기타의 논의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축약현상과 함께 삭제현상에 대해 약간 관심을 돌려보기로 한다. 우선 다음의 예를 보자.

- (9) ㄱ. 없는이>없니이, 있는이>있니이
 ㄴ. 구덩이>구디이, 엉덩이>엉디이
 ㄷ. 방+에→바아, 저짜+에→저짜아
 ㄹ. 가+아도→가도, 사+아도→사도
 ㄴ. 먹+어도→머어도

위의 (9ㄱ-ㄴ)의 예들은 모두 삭제현상으로 다루어야 할 자료들인 데도 축약현상으로 그릇되게 해석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¹⁵⁾ (9ㄱ, ㄴ)은 모음간

14) ‘w→o’의 음운과정에 대해선 최명옥(1982:113)을 참조할 것.

에서 비음이나 후음이 삭제되면서 장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음절이 줄어든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음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9ㄷ)은 역시 모음간에서 비음이나 연구개음이 삭제되면서 처격조사 ‘에’가 선행어간에 순행동화되어 장음으로 실현되지만 음절의 변화는 없다. (9ㄹ)은 동음삭제의 경우이며, (9ㅁ)은 역시 모음간에 연구개음이 삭제되는 경우인데, 음성적으로는 장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음절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두 음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운소의 층위에서 보아도 기저성조가 ‘고조’인 어간 ‘떡-’은 ‘저조’인 어미 ‘어’와 결합하여 ‘저저형’이 아니라 ‘고지형’의 성조형을 보이기 때문에 음절이 축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 론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중심으로 하여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1. 축약현상의 용어 사용에 있어서 논자에 따라 상당한 혼란을 보이고 있는 바, 삭제현상과 구별하여 축약은 형태소내부나 형태소경계(또는 단어 경계)에서 결합된 두 모음이 다른 한 모음이 되거나, 두 음절이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함이 좋다.

3. 2. 다음절어의 형태소 내부에서, 또는 두 음절이 결합할 때 어두음절의 두자음과 어말음절의 말자음은 삭제되는 일이 거의 없고, 어두음절의 모음이나 어말음절의 두자음이 삭제되면서 음절이 축약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음절구조상 선행음절이 개음절이고 후행음절에 두자음이 없을 경우 축약이 가장 생산적으로 일어난다.

3. 3. 한자어의 경우에는 축약현상이 지극히 비생산적이고, 그것도 고유어와 같은 인식이 들어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친근감을 주는 몇몇 어사에 국한된다. 그것은 음절마다 고유한 의미 기능을 가진 한자어의 특성 때문에 축약으로 인해 의미의 손상을 가져 오지 않기 위해서인 것으로 생각된다.

3. 4. 용언에서의 활용이 체언에서의 곡용보다 더 많은 공시적 음운현상을 보여 주듯이 축약에 있어서도 활용이 곡용의 그것보다 더욱 활발하다.

15) 특히 정철(1980)에서 그런 일면을 볼 수 있다.

또한 활용에서의 음절축약은 활음형성 및 활음삭제의 음운과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3.5. 통사적 문맥에서의 축약은 매우 수의적인 현상이며, 비공식적이고 빠른 발화일수록 더욱 자연스럽게 축약이 실현된다. 그러나, 자연발화에서의 축약현상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밀한 자료 수집 및 그 검토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동언(1986), “국어 준말의 음운론적 고찰”, 「국어학 신연구」(김민수 교수 회갑기념), 탐출판사.
- 오종갑(1986), “케음화와 그에 따른 음운현상”, 「영남어문학」13집 (영남어문학회).
- 이기문 외(1984), 「국어음운론」, 학연사.
- 이동화(1984), “안동지역어의 음운동화와 삭제”, 영남대학교 대학원.
- _____(1987), “어간말음의 음운론적 강도”, 「영남어문학」14집 (영남어문학회).
- 이병근(1979), 「음운규칙에 있어서의 제약」, 탐출판사.
- 정 철(1980), “경북지방의 언어축약”, 「어문논총」13·14집(경북대학교 국문학과).
-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태영(1983), 「방언음운론」, 형설출판사.
- 허 웅(1978), 「국어음운학」, 정음사.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1967), 「안동문화권 학술조사보고서」(제1차).
- _____(1971), 「안동문화권 학술조사보고서」(제2차).